

아쉬운 제2DJ센터

5·18단체 반발 예정부지 포기...4분의 1로 줄여 내달 착공

광주 제2컨벤션센터가 다음달 착공에 들어가 내년 5월 준공될 예정이어서 광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MICE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5·18단체 등의 반발로 부지가 변경되면서 건립규모가 예초에 비해 4분의 1로 줄어 사실상 기존 김대중컨벤션센터를 확장·증축하는 수준에 그치게 됐다. <관련기사 3면>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2컨벤션센터 건설을 위해 이달 중 시공사를 선정, 다음달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서구 차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부지 내 5만3301㎡에 사업비 618억3600만원(국비와 시비 각 309억1800만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 면적 1만8500㎡(전시면적 5000㎡) 규모로 짓게 된다. 센터에는 3000여 규모의 다목적 홀과 19개의 중·소 회의실, 통역실, VIP실 등이 들어선다.

1층에는 김대중 홀과 지역우수상품 상설 전시장과 근린생활시설 등도 설치된다. 제2컨벤션센터는 건물 2층

이 기존 김대중컨벤션센터와 바로 연결될 예정이다.

광주 제2컨벤션센터가 준공되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전시·회의장 총 면적이 1만6278㎡의 규모로 늘어나게 되며,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와 부산 벡스코(BEXCO), 서울 코엑스(COEX), 대구 엑스코(EXCO)에 이어 전국 5번째 규모의 컨벤션시설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부산과 일산 등 다른 지역이 앞다퉀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새로 증축될 광주 제2컨벤션센터 규모가 예초보다 크게 줄어들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김대중컨벤션 관계자는 “현재 가동률이 70%를 넘어서 전시장과 회의실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2컨벤션 규모가 예초보다 적은 게 아쉽지만, 3000여 규모의 회의실을 갖춘 만큼 내년부터 예정된 수많은 국제행사를 무난히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예초 1460억 원의 예산



광주 제2컨벤션센터 조감도. 기존 김대중컨벤션센터(뒷 건물) 앞 광장부지에 들어선다.

을 들여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 5·18자유공원 내 상무대 영창과 법정을 제외한 2만3000㎡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전시장과 컨벤션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5·18 단체의 반발로 무산됨에 따라 현재의 부지로 장소를 변경했다.

<관련기사> cki@kwangju.co.kr

◇MICE산업 = 기업회의(Meeting), 부가까지 창출(Incentive), 국제회의(Conference), 전시사업(Exhibition)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에서 첫머리를 딴 것이다.



하루종일 장맛비가 내린 1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 IC 부근 하수관로가 밀려든 빗물을 이기지 못하고 범람해 차량통행에 불편을 겪는 등 큰 혼잡을 빚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달말부터 기록적 폭우

내달 중·하순 초대형 태풍 한반도 강타

장마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다음달 하순에는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삼성화재 방재연구소가 발표한 ‘2012년 여름 기상전망’에 따르면 이달 하순 장마가 끝나면서 다음달 중순까지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충청남·북, 강원남부, 경북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서울 등 중부지역도 한차례의 게릴라성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달에는 대류 불안정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나뉘며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연구는 예측했다.

또 이달부터 다음달 중순 사이에 1개, 다음달 하순에서 9월까지 1개의 강력한 태풍이 발생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올해 라니나(서태평양의 해수온도 상승으로 발생하는 동태평양의 저수온 현상)를 과거 유사연도와 비교했을 때 나타난 결과”라며 “최근 태풍 발생 빈도는 감소하지만 강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지역은 상대적으로 국지성 폭우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으나, 9월 상순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평년 평균 기온(21.9도) 보다 더운 날이 많았다.

한편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내린 비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양 121.5mm, 담양 102mm, 장성 97.5mm, 함평 86.5mm, 광주 85.5mm 등으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80~120mm의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13일부터 다시 비를 뿌리겠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인학 학 부 062) 605-1114
문의 대학원 062) 605-1115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정두언 의원은 부결...새누리 원내지도부 총사퇴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반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할 조짐이다.

<관련기사 3·4면>

국회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표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 반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시켰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지난 4일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에 송부됐고,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지난 9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다.

이에 여야 모두 국회의원 특권 폐기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집권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부결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특권포기’를 추진해온 새누리당에 대해 ‘동료

의원 감싸기’가 재연됐다는 여론의 비판론이 비등해질 전망이다.

이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새누리당이 국민을 배신했다”며 박근혜 전 비대위위장과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제기했다.

대선 가도에도 역풍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국회 본회의의 표결 직후 부결에 책임을 지고 전격 총사퇴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일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림

행복한 자산관리 특별강연회

19일(목)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일보보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투교협)와 공동으로 베이비부머(1955~1963년)와 그 다음 세대인 F세대(Forgotten Generation, 1966~1974년 출생)의 은퇴 및 노후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행복한 자산관리 특별강연회’를 마련했습니다.



강창희 회장 신성호 본부장

이번 강연회에는 은퇴설계 및 자산관리 최고전문가인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과 신성호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중·장년층의 은퇴 준비와 노후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가 가능하고, 사전신청을 통해 현장에서 증권사 전문 PB 들로부터 은퇴설계 및 자산관리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에게는 자산관리 책자와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 강연명 : 행복한 자산관리 특별강연회 (부제 : 100세 시대 행복한 은퇴를 준비하는 미래 자산설계)
- 일 시 : 7월 19일(목) 오후 2~5시
- 장 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300석)
- 대 상 : 자산관리/은퇴설계에 관심있는 사람(무료)
- 참가 및 상담 신청 : 투교협 홈페이지(<http://kcie.or.kr/Concert/Concert-Intro.jsp>)

光州日報社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氣의고장영암우수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친환경농특산물로 타지역 농특산물에 비해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



달마지선물세트



장류세트



건나물



빨간양파즙



달마지 쌀골드



영암 한우



무화과 잼/무화과



단감 / 대동감



영암 배



호박고구마 / 밤고구마



구입문의 www.gichandle.co.kr 또는 “기찬들” 영암군친환경농특산물판매센터 Tel. 061)473-2130, 470-2846, 2809

결제계좌 | (농협) 652-01-006318 (영암군친환경농특산물판매센터) 택배발송 | 50,000원 이상 구입시 택배비 무료